

“군 공항 예비후보지 2곳 선정 가능 소음 완충지대 100만평 추가 매입”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협의절차라도 진행 해달라”
취임 초 국방부와 면담 했던 김산 무안군수 “말 아끼고 싶다”
명현관 해남군수 “민간공항 무안 가는데 군공항만 해남으로?”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해남과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면 2곳 모두 예비후보지로 선정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공항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350만평(약 1000만㎡) 수준의 군 공항부지에 더해 소음 완충지대 100만평(330만㎡)를 추가로 매입하는 기본 계획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관여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전 예비후보지인 무안·해남군 모두 국방부 주관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언제든 관련법에서 정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국방부 주관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언제든 관련법에서 정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국방부 주관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언제든 관련법에서 정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이전 사업의 변곡점이 될) 예비 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민간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공항과 통합되는 것과 관계없이, 국방부 입장에서서는 전남 기초단체 4곳 가운데 작전성 검토를 거쳐 적정 통보가 내려진 무안·해남 둘 중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의식한 듯 “군 공항 이전 관련법은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초단체장들이 워낙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서 협의 절차 격인 설명회나 행정협의회 개최는 물론 사전 방문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기초단체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만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 된 후 주민 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되도 단체장이 이전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해남군의 경우 줄곧 국방부 관계자 방문조차 거부하는 등 초지일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한다. 국방부에서 협의나 설명회 하러 방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을때도 음 필요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그러면서 “군공항이 온다면 간척지뿐인데 농민 피해, 인근 관광단지나 축사 피해가 막심하다”며 “특히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가는데, 군 공항만 해남으로 가져온다? 이전 설사 군수인 제가 유지를 희망해도 주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안군은 지난 2017년까지 ‘민항을 이전해줄 경우 군 공항은 추후 논의해볼까’며 여지를 뒀지만 지난해 김산 무안군수 취임 이후 얼마 안돼 ‘결사 반대’로 선회했

다. 평생 군민들을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다만 김 군수는 해남군수와 달리 취임 초기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한 두 차례 가졌다는 점에서 온도차가 났다. 김 군수는 이날 통화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싶다. 양해해달라”며 언급을 꺼렸다.

전남도의회 등에서 수년간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를 지켜봤던 한 정치권 인사는 “단체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면서 군공항을 가져오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모든 건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광주·전남 시도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저마다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결단을 내리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범위인 80웨클(소음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해남 등 350만평 이상을 군공항 부지로 매입하고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음 완충지대 100만평 이상을 매입하기로 광주시와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다.

새롭게 조성될 군공항 부지 규모만 놓고 보면 240여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이는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군공항 소음 보상법) 제정돼 개별 소음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보상 절차가 편리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의회, 농산물 최저가 보장 등 촉구

WTO 개도국지위 포기 관련
농업분야 대책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자유무역

협정) 무역이익 공익기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의회는 5일 제 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신안 1·민주)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예산 확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산의 가을 ... 오메, 단풍들었네



5일 오후 화순 이서면 무등산 자락에 있는 규봉암 주변이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탄력’

정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수 ‘선소테마정원’은 퇴짜

광주시와 나주시가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복합 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여수시가 지난 3월 상정했다가 재검토 판정을 받았던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은 또다시 ‘퇴짜’를 맞아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나주시가 제출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에 국비와 지방비 등 626억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2만11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비 등이 증가하면서 총 사업비가 애초(490억)보다 늘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도시발전재단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국비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건립 이후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통해 운영을 맡기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행안부는 유지관리 비용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목포시가 제출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1089억)도 조달재원 분담방안과 시설별 세부운영계획 등을 수립한 뒤 추진토록 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제출한 14개 사업 중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 ▲광역재활병원 건립(여수)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광양)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광양) 등 4개 사업은 재검토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 민간공원 수사 칼끝 어디까지 ▶6면

한국영화 100년 - ‘결혼 이야기’ ▶18면

KIA 매트 윌리엄스 감독 공식 취임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와 함께 떠나는 동반여행

당신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그랜드투어

하나투어 & 김상근 교수 특별 기획 그랜드 투어
2019년 12월 15일
단 하루 출발!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그랜드투어 8일
총 상품가액 7,990,000원~
대한항공, 4성급호텔, 인문학강연, 미술관관람
현지지출 ▶ 가이드+기사장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

- 주요 활동 및 약력
 - (한양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 연세대 신학과 졸업
 - 프린스턴신학대학원 박사 (Ph.D, 16세기 전공)
 - (전)연세대 신과 대학 학장, 대학원(연신원) 원장
 - (전)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연구책임교수
- 주요 저서 및 방송
 - <나의로망, 로마>-JTBC 차이나는 클라스
 - "플라톤의이탈리아" 방영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현자, 마키아벨리>
 - JTBC 차이나는클라스 "마키아벨리는 김재이커" 방영
 - Seri CEO, SBS, EBS, JTBC 등에서 인문학 강연

DAY 1 로마 도착 숙박
비행 12시간 25분(대한항공)
로마에 도착해 보르게세 공원 건너편에 위치한 NH 비토리오 베네토에 묵게 된다. 이곳은 현대적 건축 건물에 약 2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한 4성급 호텔

DAY 2 스메션 - 인문학 강연
김상근 교수의 역동강 넘치고 흥미진진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고대 로마의 역사 한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소요 시간 약 1시간

DAY 2 로마 벵조 관광
로마 시내 전을 벵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기 때문에 관광하기 편리하다.
소요 시간 약 3시간
Point 판테온 신전, 진실의 입, 스메인 광장

DAY 3 로마 -> 티볼리
로마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 로마 제국 시대에 부유층들이 여름 휴가지로 즐겨 찾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정원처럼 아늑한 느낌이 든다.

DAY 4 시에나 -> 피렌체
중세 시대 건물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는 1995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청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장은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하다.

DAY 5 피렌체 -> 아씨시
14~15세기 피렌체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 로마와 더불어 이탈리아 관광의 메카로 꼽힌다.
Point 브르젤로 미술관, 우피치 미술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DAY 6 피렌체 -> 아씨시
12세기에 성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마을. 가톨릭 성지 중 하나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을 비롯해 프란체스코 계열의 교회들이 모여 있다.

DAY 7 아씨시 -> 로마
로마 북서부에 있는 비티니 시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자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비티니 박물관, 성 베드로 대성당 등 뛰어난 예술품과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다.

*본 상품은 하나투어와 한국능률협회 함께합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료요금, 여행상품보험,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이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포함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사항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험보통 22억 1천만원 가입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